

## 오르비

## 1타 같은 N타

## EBS 수능 특강 Zola Guide

## [주의]

1. ebs 교재 내용에도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음. 따라서 ebs 오류 및 수정 공지를 ebs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볼 것.
2. 오답을 정답으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 것.

## 1. 개념 부분

## \* 보는 법 : 숫자(쪽수): Zola Guide

- 19~22: 날개단(보조단) 용어 확인. 사상에 쓰이는 용어들 암기는 기본임!
- 20~24: 자료플러스 제시문 확인. 사상(가)는 핵심 제시문에서 선지들이 뽑아지므로 제시문을 잘 정독해 보길 바람.
- 34~35: 죽음관 관련 자료 플러스 확인. Zola 강의 수강생들은 도가와 에피쿠로스 구분 포인트 지적해 준 것 다시 확인할 것!
- 47~48: 자료플러스: 환경 윤리로 해결할 수 있음. 동물실험과 동물 권리를 굳이 이중으로 공부할 필요없음. 단, 자료플러스는 잘 확인해 둘 것. 환경 윤리 제시문으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함.
- 55: 프롬의 '사랑의 기술' 알아둬. 통수 맞지 마!
- 57: 자료플러스: 배려윤리는 단독형도 나오지만 덕윤리나 정의윤리와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
- 58: 자료플러스: 유가 사상의 입장에서 가족 윤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제시문 잘 확인! 가족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한자어와 의미) 암기!
- 67: 자료플러스: 직업관은 국가 윤리와도 연결됨. 국가관과 연결시켜서 알아둘 것.
- 68: 아래 자료플러스: 사회적 자본은 독해형임. 한 번 읽어볼 것. 기출 문제도 있음.
- 76~81: 여기는 킬러 중의 킬러임.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분배 정의, 교정 정의 모두 조심해야 함. Zola 수강생은 반드시 백지 복습 점검할 것!!
- 89~91: 국가관 관련 자료 플러스 모두 확인! 사회 계약론은 개념 먼저 확인 한 후에 사상이 조심하면서 준비해야 함. 단, 윤사처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음. 윤사 선택자는 윤사 지식으로 해결됨.
- 93: 시민 불복종 공통 개념부터 정리해라!!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 개념 구분도 장착할 것! 롤스...벌(!) 조심!!!
- 103: 자료플러스: 야스퍼스가 가치 중립이니 아니네 이딴 것 외울 시간에 글을 읽고 독해하는 연습을 해!



105: 자료플러스: 요나스의 책임윤리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외울 것은 꽤 있음. 단순 암기+바나나적 상식(!)

122~125: 자료플러스: 서양의 환경 윤리는 필수! 올해에는 어떤 바나나들이 발견될지 무척 궁금함^^

☞ Zola Guide [무료] Zola 생운 O - 바나나 제거 특강

<https://class.orbi.kr/course/2050>

126: 자료플러스: 동양의 자연관은 동양 사상(수특 2강)과 합칠 것

138~139: 자료플러스: 플라톤이든 톨스토이든 도덕주의는 도덕주의임. 단, 실용성을 강조하는 목자 사상 주의할 것.

140: 가운데 자료플러스: 칸트의 예술관 이제 필수임. 칸트 의무론과 연결시키면 이해하기가 쉬움.

142: 작년에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에 대해 지식형으로 출제한 사설 OO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길래 버리라고 했음. 지식과 독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바나나가 됨(누가 왜 출제한 거야?) 바나나 제거 특강 4~5강이 독해 연습시키는 강좌임. 아도르노 외울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Zola 생운 O의 4~5강을 듣길 바람. 진심 권면함! 무료임!!(듣고 괜찮으면 Zola의 개념 강좌-Zola 생운 1-도 구매해 주면 감사하겠음)



<https://class.orbi.kr/course/2310>

[수강후기] <https://class.orbi.kr/teacher/164/review>

(읽어보면 님들 생운 준비에 도움되는 후기들이 있을 겁니다.)

153: 자료플러스: 엘리아데의 종교관은 지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164: 자료플러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확인! 밀의 자유론과 헛갈리는 분들도 있음. 밀의 자유론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음. 공부 좀 부족함!

173: 자료플러스: 현실주의 이상주의 비교 확인. 단, 이상주의가 워낙 두리뭇실한 이론이라 너무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음.

174: 자료플러스: 갈통의 평화론도 칸트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지식이 필요함!

175: 자료플러스: 칸트 영구 평화론은 꽤 자세하게 물어 봄.

177: 오른쪽 날개단: 롤스의 해외 원조에 등장하는 기본 용어들의 의미가 서술되어 있음. 그런데 ebs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님들을 가르치는 쌤들의 자료와 필기를 꼭 백지 복습할 것. 롤스는 용어가 상당히 롤스벌(!)스럽다!



## 2. 문제 부분

### \* 보는 법 : 숫자(쪽수)-숫자(번호): Zola Guide

- 14-6: 도덕 추론 모형(3단 논법)에 대한 문제가 한 동안 유행(?)하다가 요즘 안 나오고 있음. 통수를 대비해 확인해 볼 것.
- 16-3: 선지 ① 질문 나눔. 헛갈리면 그냥 넘어가도 됨.
- 17-6: 14-6의 도덕 추론 모형이 지식이 강하다면 이걸 상식(?)이 강한 문제임. 만약 평가원이 이 문제를 활용한다면 두 문제의 중간 정도의 어디쯤에서 결정될 것임.
- 26-6, 29-5, 30-7, 31-10: 칸트 제시문 잘 확인해 둘 것. 칸트는 킬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럿 있음.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의 관계, 자연적 경향성과 의무의 관계,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의 관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관계, 준칙과 법칙의 관계 파악해 둘 것.
- 25~28: 동양 윤리 암기+암기대로 문제 풀 것! 단, 도가 제시문 눈팅해 뒤.
- 26-5, 29-6: 자연법 사상가가 아퀴나스만 있는 것이 아님. 사상가 구분보다는 자연법 윤리가 뭔지 알고 풀면 됨.
- 43-5: 플라톤의 죽음관은 직업관(국가관)이나 예술관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확인해 둘 것. 죽음이라는 주제에 한정하면 육체와 영혼, 이데아의 관계를 파악하면 됨.
- 44-8: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확인. 그리고 불가의 '업'의 의미, '업-죽음-윤회'의 관계도 확인할 것. 에피쿠로스와 도가 헛갈리면 X 됨!
- 50-6, 50-8, 52-4, 53-5, 53-6, 54-7: 환경 윤리 문제임. 환경 윤리 개념 및 사상가 정리하고 꼭 풀어볼 것.
- 59-1, 63-5: 프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조금이지만 아는 것이 좋음.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아님!!! 사랑은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님!!!!
- 62-3: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개념 확인해 줘!
- 60-6, 60-7, 61-1, 63-6: 전통 가족 윤리인데, 이게 유가 사상임. 지식(한자어)가 필요함. 예를 들어 63-6의 <보기> ㄷ의 '정조(貞操)'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 [확인] 친구 사이에는 의리와 정조(貞操)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O? X?)
- 이걸 판단하지 못한다면 님은 '조선어'가 안 되는 것임. 생윤이 아님! 국어 사전 찾아보길 바람!! 참고로 위의 [확인]은 몇 년 전 ebs 수완에 출제되었던 선지였음. 답은 사전 보고 님들이 국어적으로 판단할 것.
- 하나 더! 인륜, 천륜, 수족지의, 장유유서, 상경여빈, 골육지친 등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교과서 찾아보면서 단어 공부할 것! 수특 내용만으로는 부족함. Zola 수강생은 자료 교재 참고할 것!



70~75: 직업관은 기출 제시문 잘 확인할 것. 직업관 주제는 국가관 또는 이상 사회하고도 연결되므로 같이 정리할 것.

82-1, 84-1: 21학년도 22학년도에서 니부어가 안 나왔음. 니부어 도대체 언제 나오니? 왜 안 나오냐? 제발 나와라!! 니부어 나올 것 같은 분들은 기출(제시문과 선지 모두) 잘 확인할 것!!

82-2, 86-6-갑: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따로 정리해 둘 것.

82-4: 노직의 정의의 원리(취득-이전-교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 확인해 둘 것. 어렵지 않음.

83-5: 천부적 자질(우연성, 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문장들을 헛갈려하는 분들이 많음. 이건 지식이라기보다는 국어적인 이해의 문제임. 그렇지만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헛갈리는 것은 외워둘 것. 그리고 반드시 헛갈리는 '문장'의 '의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남들을 가르치는 쌤들에게 확인할 것!!

83-7, 88-10: 왠지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번에???

82-3: 루소. 사형, 범죄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베카리아와 칸트와의 비교 포인트 주의할 것. 어느 현직 교사분(?)이 쓴 글임. 시간나면 눈팅해 볼 것.

[참고 글] 오개념 시대인재 모의고사 생운 10~15회(2022학년도 시대인재 N 모의고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147436>

83-8: 베카리아 아직 엇먹을 곳이 더 있음(사설 모의고사에 출제했더니 킬러급이라고 부탁하신 분이 좋아하심. 어느 사설인지는 나도 모름. 그냥 문제만 만들어서 넘겼을 뿐임. 나는 내 모의고사인 줄시 모의고사를 만들어야 하는데...ㅜㅜ) 여튼 님들은 평가원 기출 제시문 잘 확인해 볼 것.

87-7: 칸트. 선지 조금 바꾸면 바나나들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음. ㅋㅋㅋㅋ 평가원이 사용 안 하면 나중에 Zola가 줄시 모의고사에서 사용해 보겠음.

88-9: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병은 니부어임. 사상이 조합이 특이하네. 갑, 을, 병 모두 '정의'라는 주제로 묶일 수 있음. 3단원 전체가 '정의'에 대한 내용임. 즉 3단원 안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생소한 사상이 조합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임. but(벗뜨)!!! 조합이 신선하다고 해서 선지가 신선(?)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셈!!



- 94-3, 95-5: 사회 계약론 3인방 정리해 둘 것. 헷갈리면 일단 멈추되, 헷갈리지 않는 것들은 암기해 뒤! 그리고 서양의 국가관은 개념적으로 본성론(아리스토텔레스), 계약론(3인방), 혜택론(흠), 자연적 의무(롤스) 즉 4개로 정리 가능함. 사상가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 장착해 둘 것!! 단, ebs 수특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음. 교과서나 님들을 가르치는 쌤들 강의 확인할 것.
- 95-8: 드디어 나왔다. '드워킨'!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음. 단, 어렵지 않고 거의 독해로 가능함.
- 96-1: 율이 법가임. 법가의 기본 개념 확인해 둘 것.
- 96-2: 갑이 목가임. 목가와 유가가 살짝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 목가의 국가관과 유가의 국가관 정리할 것. 참고로 목가는 예술관에도 등장함(기출로 이미 출제되었음).
- 98-5: 거의 윤사급임. 윤사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출보다는 더 지식 정리 해 두는 것이 좋음.
- 98-6, 99-8: 시민 불복종 사상가는 지금까지 3명이 출제되었음. 소로, 롤스. 싱어. 이 중에서 롤스 정답률이 가장 낮은데,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암기만 제대로 되면 거의 10초 컷짜리 문제들임. (1) 우선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외울 것! 다음으로 (2) 롤스의 독특한 표현들을 통으로 외울 것! 영어 단어를 그 단어가 쓰인 문장 통채로 외우듯이. 수능 전까지 10개 정도만 외우면 됨. 그러면 롤스 시불(욕 아니고 시민불복종의 줄임말임!)은 10초면 됨!! 예를 들어 (2)의 경우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즉 '법의 충실성 내'에서 일어나는 '법의 바깥 경계선'에 해당하는 위법한 정치적 행위임. (3) 시민 불복종과 정의의 원칙과의 관계를 지식적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함. (4) 선지 읽을 때 기준과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함. '기준(정의)'에 따라 '대상(부정의)'에 저항함! Zola가 생운 강사인지 국어 강사인지 모르겠네ㅜㅜ
- 106-2, 111-7: 요나스는 기출 다 풀어볼 것! ebs 수특은 선지가 너무 쉽다.
- 107-8: 어떤 바나나 분이 이 문제의 사상가를 요나스로 풀고 틀려서 옴. ㅜㅜ..... 사상가 누군지 몰라도 되니까 '국어'로 풀어!!! 어설픈 지식으로 제시문을 덮어 버리니까(무지의 베일이 아니라 바나나의 베일임!)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이 안 보이잖아!! 제시문의 정보와 인간적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음!!
- 116-3: 갑 제시문 칸트 선지로 나오면 ox 가능하겠지???
- 129~135: 환경윤리는 잘 확인. 단, 아리까리한 선지는 버려. 아리까리하니까 오답인거임. 너무 따지지마! 동양의 자연관은 수특 2강의 동양 윤리 사상과 함께 정리할 것.
- 135-10: 요나스와 나딩스도 환경 윤리에 나옴. but! 책임윤리와 배려윤리로 풀면 됨!



- 143-3, 145-2: 의외로 예술관 제시문 플라톤 잘 파악하지 못함.  
 제시문 눈팅해 둘 것. 기출 제시문과 선지도 꼭 확인.
- 146-4: 갑이 칸트임. 칸트 예술관은 따로 꼭 정리해 둘 것. 의무론  
 개념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풀림.
- 155-7: 종교 사상가인 쿵임. 어느 정도 독해로 풀림.
- 159-7: 엘리아데 확인! 가끔씩(!) 통수 맞춤.
- 170-3: 원효가 불교 사상가인 것은 알고 있지?!!
- 170-4, 172-8: 하버마스는 여러 사상가와 비교가 가능함. 그러니  
 하버마스 잘 알아둘 것. 칸트, 롤스, 공리주의 등등...여러 사상가  
 들이 하버마스라 비교되어 나올 수 있음. 단, 비교되는 내용 자  
 체를 외울 필요는 없음. 각각 정리하면 그만임.
- 178-1, 180-1, 180-2: 국제관계 이론 확인. 1차 생윤(14학년도~16  
 학년도) 기출 확인해!
- 178-2, 178-3, 181-3: 평화론 주제 사상가 2명 잘 정리해 뒤. 칸  
 트와 갈통임. 제시문도 잘 읽어둘 것!!
- 179-6, 179-7, 179-8, 182-6, 183-7, 183-8: 해외원조는 다 풀  
 어! 그리고 롤스는 롤스의 용어(표현) 하나 하나 의미 파악할 것.  
 싱어는 공리주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임!

열공+즐공=대박!!!



[무료] Zola 생윤 공부법 - 망하는  
 생윤 vs. 성공하는 생윤

#2023 생윤 zola

2023 Zola 생윤 1 - 개념의 모든  
 것

#2023 생윤 zola

[무료] Zola 생윤 O - 바나나 제거  
 특강 [완강](#)

#2023 생윤 zola

<https://class.orbi.kr/teacher/164/course>